



구광모 LG 회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인도서 세번째 ‘가전 공장’ 짓는다 LG, 프리미엄·수출 전진기지 구축

8200억 투입해 스리시티에 착공 세탁기·TV 등 고급형 중심 생산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시장 확대 14억인구·수출 모두 겨냥 승부수

LG전자가 내달 인도 내 세 번째 가전 공장을 착공한다. 프리미엄 제품과 현지 맞춤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급변하는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인도 현지 매체 사크시포스트 등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5월 8일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서 신공장 기공식을 열 예정이다. 총 투자 규모는 약 500억루피(약 8200억원), 부지 면적은 약 300에이커(약 37만 평)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7에이커는 현지 주 정부가 지원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약 1500개의 신규 일자

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현지 주 정부의 투자 승인으로 기공식 준비가 마무리됐다”며 “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공장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공장에서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등 주요 생활가전이 생산된다. 인도 내 가전 시장이 중저가 중심에서 프리미엄 제품 수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LG전자는 고급형 제품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온다습한 기후와 섬유 사용이 많은 생활환경 등 현지 특성을 반영한 제품도 함께 생산될 예정이다.

스리시티는 인도 주요 항구인 첸나이에서 약 50km 떨어진 물류 요충지로,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생산과 수출 모두에 유리한 입지다. LG전자는 이 같은 물류 및 인프라 강점을 활

용해 생산·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도 방갈로르에 위치한 LG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통해 프리미엄 현지형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LG전자 인도 법인은 최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공개(IPO) 승인을 받아 약 15억 달러(2조 2000억원) 규모의 현지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LG전자는 이번 투자가 인구 14억 명의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중동·아프리카 수출까지 겨냥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리시티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빛나·이혜민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차, 인도네시아서 ‘수소 생태계’ 조성

매립지 바이오가스로 수소생산 실증 충전소 구축 등 W2H 생태계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자원 순환형 수소 솔루션(W2H·Waste-to-Hydrogen)을 구축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현대차그룹이 해외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첫 번째 실증 사업이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 시각) 자카르타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서밋 2025’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 홀딩스와 함께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인도네시아수소협회(IFHE) 주최로 열렸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하르 라하달리아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관계자 및 관련 기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 생산 실증 모델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반둥시 인근 사리묵티 매립지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리묵티 매립지는 반둥시 폐기물의 약 80%를 처리하는 곳으로, 최근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립지 개발 전문 기업 세진지엔이와 협력해 복도를 통한 재해 예방과 동시에 수소 생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현대로템의 수소 개질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설비가 투입되며, 컨소시엄 참여 기관인 제아이엔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이 한국의 수소 정책과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서부 자바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2027년까지 수소 개질기 설치 및 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하고, 페르타미나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운송 및 모빌리티 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매립지 인근 지역에 식수 지원 및 보건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수소 로드맵의 대표 사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청정 수소 생산 거점 구축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드류 퍼거슨 전 美연방하원의원 영입

통상 압박에 워싱턴 연결 고리 마련 관세돌파·현지투자 협력 총괄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미 의회 공화당 4선 출신 드류 퍼거슨 전 연방 하원의원(사진)을 전격 영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후폭풍 속에서 미국 측과 원활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시간) 드류 퍼거슨 전 연방 하원의원을 오는 5월 1일부로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퍼거슨 소장은 미국 정부, 의회와 현대차그룹 간의 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워싱턴사무소에서는 로버트 후드 전 미국 국방부 법제처 차관보가 현대차의 대관 업무를, 크리스토퍼 웬



크 전 미국상공회의소 수석 국제정책국장이 기아차의 대관 업무를 각각 이끌었다. 퍼거슨 소장은 그룹 차원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퍼거슨 소장은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의 4선 하원의원 출신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미국 입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책 조율 경험을 갖고 있는 퍼거슨 소장이 자동차,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 미국측의 협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K-조선, 수주 풍년에 ‘생산여력’ 확보 총력

수주 물리지만 도크는 포화 상태 IMO 탄소세에 친환경 선박 수요 ↑ 필리핀 중심 동남아 생산분산 가속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K-조선이 글로벌 수요 확대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재료로 수주 랠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다만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생산설비가 한계치에 가까워지며 각 사는 해외 생산기지 확보 등 건조 역량 분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오는 2027년부터 5000톤이상 대형 선박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탄소세 제도를 도입한다.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 집약도를 측정해 감축 목표치인 ‘티어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의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약 52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박 발주 급증으로 수요에 조선사들이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도크 부족 등 인프라의 한계가 부담으로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D현대 주요 조선 계열사들은 현재



HD현대중공업이 27일(목)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Diego Silang)함’의 진수식을 개최했다.

대부분 가동률이 95%를 넘어서며 생산능력의 최대치에 근접한 상태다. 특히 HD현대삼호는 지난해 평균가동률이 116.2%에 달했으며 생산가능시간보다 16.2% 초과해 공장을 돌리는 등 생산 과부하 상태에 놓였다.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 역시 각각 98.9%, 97.1%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추가 수주에 대응할 물리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중공업 또한 생산능력을 초과한 고강도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회사의 조선 부문 가동률은 112%에 달한다. 한화오션도 같은기간 가동률 100.4%를 기록하며 설비 한계치 이

상을 가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주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생산 일정의 유연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조선사들은 해외에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등 건조 능력 분산 및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조선소 생산기지를 적극 활용 중이다. 지난 3월에는 HD현대마린엔진이 HD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295억원 규모의 선박엔진을 수주했다. 해당 엔진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될 11만 5000톤급 탱커 4척에 탑재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코르벳함을 인도하며 최근 거론된 수빅조선소 인수 검토와 맞물려 동남아시아 거점확대 움직임과 연결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인정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화오션도 필리핀 수빅조선소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 생산 기지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전, 베트남과 원전·에너지 신사업 강화

하노이서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정부와 국영 기업들을 만나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원전 및 전력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전을 포함한 ‘팀코리아’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소개했다. 베트남의 주요 관심분야인 원전 사업구

도, 자원조달, 금융지원제도,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14일에는 양국 장관급 협의체인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 고위인사들과 면담했다. 한국의 베트남 원전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전은 산업공동위원회에서 베트남 송전공사와 전력망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AC 송전망 구축 및 운영 등 전력망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